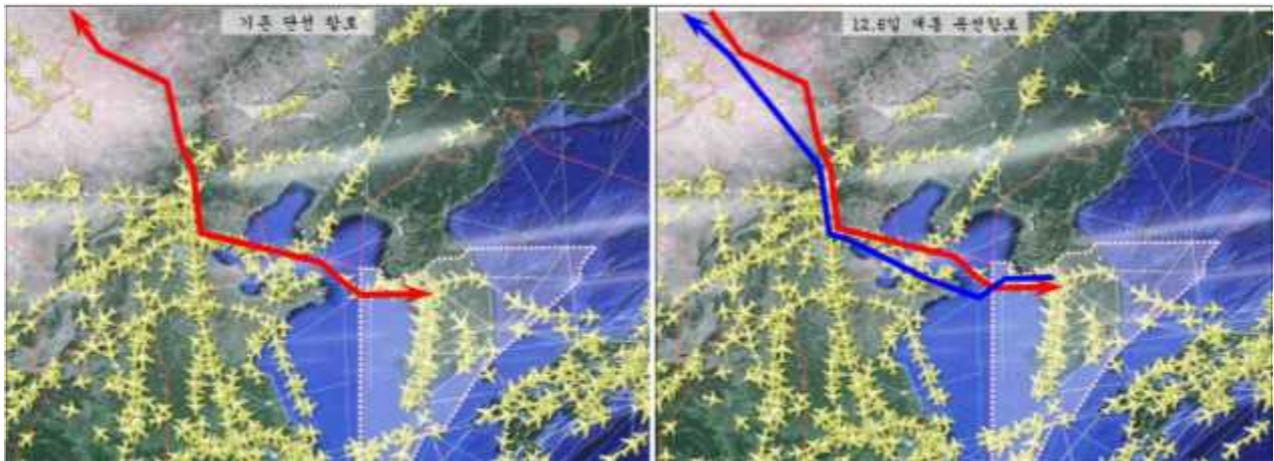


| | | | |
|---|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국토교통부 | <h1>보도자료</h1> | | 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보다 나은 정부 |
| | 배포일시 | 2018. 12. 4.(화) 총 4매(본문3) | |
| 담당 부서 항공교통과 | 담당 자 | • 과장 유경수, 사무관 김남극, 주무관 이준호 • ☎ (044) 201-4299, 4301 | |
| 보도 일시 | | 2018년 12월 5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2. 4.(화) 16:00 이후 보도 가능 | |

6일부터 한중 북선 항로 개통 ...중국유럽행 하늘길 숨통 틔운다 중국몽골중동유럽행 신설항로 이용...유럽행 지연율 12%→7% 축소 기대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6일 00시부터 중국, 몽골, 중동, 유럽행 항공편이 이용하는 한중항로(G597/A326) 1,700km 구간이 북선으로 운영된다고 밝혔다.
- 이에 따라 그동안 상습정체 구간으로 악명 높던 북경하늘을 통과하는 항로가 북선으로 분리되어 항로혼잡과 국내공항 출발편 지연 문제가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.



- 국토교통부는 중국 하늘의 교통량이 급증하면서 항로비행을 위한 대기, 지연이 생겨나는 경우가 많았고, 교통밀집시간대(11-15시)에는 1시간 이상 장시간 지연운항이 빈번히 발생해 왔으나,
- 이번 항로체계 개선으로 연 15만대(하루 410편)의 해당 노선 이용

항공편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, 특히 1시간 이상의 장기지연이 빈번한 유럽행의 지연율이 12%(2,188편)에서 7%대(1,276여편)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.

* 국제선은 이륙예정시간에서 1시간 초과 시 지연으로 간주되는데 한중 노선은 항로혼잡으로 운항편의 12%가 1시간 이상 지연되는 매우 혼잡한 노선임

□ 이를 위해 양국 항공당국은 12월 5일 중국 대련에서 ‘한중 항로개선 워킹그룹 2차 회의’를 개최하고 12월 6일 북선 항로 운영에 최종 합의하였다.

* 수석대표: 한국 김상도 항공안전정책관, 중국 체진준 공중항공교통관리국장

○ 양국은 지난 5월 서울에서 개최된 1차 워킹그룹회의에서 한중항로를 연내에 북선화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한 바 있고, 이후 후속조치를 위한 실무협상을 거쳐 항로설계, 관제합의서 개정, 비행검사 등 준비작업을 마무리하고 최종 합의하기에 이르렀다.

○ 이에 따라 그동안 중국 내 한 항로를 양방향으로 이용해야 했던 인천 행/발 항공기들이 내일부터는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항공기는 기존 항로(A326-G597-Y644)를 이용하고, 우리나라에서 중국, 몽골, 중동, 유럽 등으로 나가는 항공기는 신설 항로(Y697-A591)를 이용하게 됨으로써 하늘길이 넓어지게 되었다.

□ 이번에 북선화하는 한중 항로는 77개 항공사에서 일 400편이 운항하며, 한국·일본에서 중국, 몽골, 중동, 러시아, 유럽 등 60개국 106여개 도시를 연결하는 동북아 지역의 주요 간선항로다.

○ 그동안 중국 항공당국은 중국내륙 상공의 심각한 교통혼잡으로 인해 인천공항 출발 항공기 분리간격을 30~50마일로 길게 설정하고, 유럽행 항공기는 10분에 1대씩 이륙하도록 제한함으로써 심각한 지·정체를 초래하였는데,

- * (교통량) '13년 115천대, '14년 128천대, '15년 143천대, '16년 150천대, '17년 144천대
- * (지연현황) 인천공항 기준, '15년 899편, '16년 1,344, '17년 2,202편이 1시간 이상 지연

- 이번 항로 복선화 협상을 통해 항로 복선화와 함께 항공기간 분리 간격을 기존 30~50마일에서 20마일로 축소하고 주간 밀집 시간대(11~15시) 장기 지연을 초래한 유럽행 노선의 이륙제한을 현재 10분 간격에서 6분으로 우선 줄이고, 2019년 말까지 4분으로 추가 단축하기로 합의하였다.

➡ 항공기간 분리간격 30~50마일 → 20마일 단축
유럽행 노선 이륙제한 10분 → 6분 단축

- 이에 따라 현재 출발기준 항로 수용량도 시간당 19~20대에서 25대로 25% 이상 증대되고, 특히 인천공항의 유럽 노선에서 매일 발생하고 있는 출발지연도 12%에서 7%수준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,
- 인천공항의 항공기 이착륙이 보다 원활해지고 또 이륙전 항공기 기내에서 30~60분 이상 기다려야 했던 승객들의 불편이 많이 해소되는 한편 항공사들은 연료절감 효과가 기대된다.

➡ 現 첨두시간대(11시-15시) 운항교통량 20대 → 25대로 증대 가능,
인천發 유럽행 지연율 12%(年2,188편)→7% 수준(年1,276편)으로 저감

- 국토교통부 김상도 항공안전정책관은 “한중 항로 복선화는 우리 정부가 2010년에 협의를 제안한 이후 양측간 입장 차이 및 사드 여파 등으로 오랫동안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중요한 현안이었는데,
- 마침내 최종 합의 및 운영 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항로 혼잡해소에 큰 전기를 마련하였다고 평가하고, 중국도 한중 항로 복선화와 함께 자국내 항로 체계를 재정비함으로써 원활한 교통흐름을 통해 동북아 항공교통 원활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.

○ 특히 김 정책관은 “이번 한중 항로 복선화를 토대로 앞으로 남북 관계가 좋아져 남북 서해 국제항로가 연결된다면 교통량 분산을 통해 인천공항의 항공기 이착륙 및 이동이 원활해지고 지연율이 현저히 줄어드는 등 그 효과가 극대화될 것” 이라고 강조했다.

* 2017년 기준 항공운송량: 중국 세계2위, 일본 세계6위, 한국 세계8위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항공교통과 김남극 사무관(☎ 044-201-4299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

중국·유럽행 항로 도면

